

강림하시는 메시아의 성과 이름을 예언한 대목

이 세상의 종교지도자들 중에는 스스로 자신을 높혀 구세주니 미륵불이니 정도령이니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조희성님은 자칭 하나님, 주님, 구세주, 생미륵불, 정도령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조희성님을 따르는 신도들이 성경과 불경 그리고 격암유록 등의 예언서에 조희성님이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첫째, 메시아,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은 조(曹)씨 성으로 온다고 예언되어 있다.

불경 미륵진경에 '赦罪天曹求衆生(사죄천조구중생)' 즉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중생을 구원한다고 예언되어 있으며, 미륵화생경에는 '天曹錄人間善惡券心報應(천조녹인간선악노심보응)' 즉 하늘의 조씨가 인간의 선악의 노고를 기록하여 응당히 보답한다고 하였다. 또 선불가진수어록에는 '曹陽真人 如知天仙金丹大道(조양진인 사지전선금단대도)' 즉 양을 회복한 진인 조씨가 천선의 금단대도를 성취한다고 예언하여 미륵불

이 조희성님과 같은 조(曹)씨 성으로 나올 것이 기록되어 있다.

또 격암 남사고 선생의 격암유록 새(贊)41장에는 '大陸東方 海隅半島 天下一氣再生身 人生秋收 糟米端端飄飛 糟飄風之人 弓十勝(대륙동방 해우반도 천하일기재생신 인생추수 조미단풍구비 조표 풍지인 궁을십승)' 즉 대륙의 동방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 땅에 천하의 기운을 받아 거듭난 몸으로 인생을 추수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가 궁을의 이기신 하나님(정도령)이라고 했다. 인생을 추수하는 분이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하며 문장에 지계미조(備)자에서 쌀 미(米)자를 바람(風)에 몰아(飄) 날려(飛) 버린 조(曹)씨 성의 사람이 십승(十勝) 즉 이기신(勝) 하나님(十)이라는 뜻이다.

둘째, 메시아,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은 밝은 별을 뜻하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

불경 불설미륵내시경(佛說彌勒內示經)에 '明星出時 得佛道(명성출시 득불도)' 즉 밝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미륵불이 출현할

때 불도를 얻게 된다는 대목과 미륵화생경에 '世尊曰 我差天星次第下生 一切眷屬皆作天人(세존왈 아차천성차제하생 일체眷속계작천인)' 즉 세존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음에 하늘의 별로 내려오리라. 그리하여 일체 권속이 다 하늘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는 대목과 또 미륵화생경에 '令諸天星 教化衆生(령제천성 교화중생)' 즉 "하늘의 별이 모든 중생을 교화시켜 호령한다."라고 했는데, 장차 생미륵불이 희성(熙星)이라는 이름으로 강림하신다는 뜻이다.

격암유록 도부신인(桃符神人)편에 '大白金星曉星照(대백금성효성조)' 즉 "큰 의인은 금성 즉 새벽별이 비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또 만국 공용의 합동 찬송가 후렴에는 "구주는 산곡에 백합 명량한 새벽별, 만인 위에 뛰어나시는 주(님)일세"라고 하여 성경에도 이긴자 구세주는 새벽별 즉 밝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다고 불경, 격암유록과 일치하는 예언을 내놓았다.*

나의 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영혼은 생명이며, 영혼은 마음이며 피는 영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종교가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존재인고로 눈으로 보이지 않으며, 죽으면 떠나가서 영원무궁토록 지옥에서 살거나 천당에서 살든지 하는 것이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실체는 죽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며 피의 작용이다. 그러므로 피 자체가 마음이고, 영이다. 또한 생명이 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가 영이요, 생명이요, 마음인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진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영구리 근심제거, 골반 불균형 해소, 하체 피로를 풀어 척추를 편안하게!!! 골반 좌우 불균형으로 인해 노폐물이 쉽게 쌓이므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일 반 호흡보다 산소가 두세 배 많이 공급되는

복식호흡과 요가 아사나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시원하게 노폐물을 날려 보내도록 지금 시작해 볼까요?

TIP: 림프절(겨드랑이, 옆구리, 사타구니) 수련 전후에 반드시 발목, 무릎, 허리 관절을 충분히 풀어준다.

동작 ①: 앉아서 왼쪽 무릎을 접고, 오른쪽 무릎은 옆으로 뻗는다. 양팔은 수평으로 퍼준다. 10초 유지, 양쪽 교대로 3회.

동작 ②: 호흡을 마시며 상체를 오른쪽으로 내린다. 왼팔을 높이 끌어 올린다. 시선은 손끝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양쪽 교대로 3회.

동작 ③: 호흡을 내쉬며 왼손으로 오른쪽 발가락을 잡는다. 10초 유지, 양쪽 교대로 3회.

동작 ④: 양다리를 옆으로 퍼준다. 호흡을 내쉬며 상체를 배꼽, 가슴, 이마 순으로 앞으로 숙인다. 팔을 앞으로 뻗어 바닥에 댄다. 무릎과 발끝은 하늘을 향한 다. 주의: 다리 확장은 자신의 유연성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다. 10초 유지, 5회.*



동작 ①



동작 ②



동작 ③



동작 ④

몸 안에 짓는 죄는 음욕으로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되니 청춘남녀는 삼가고 삼갈지니라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39회

羅馬一 二十三條 라마일 이십삼조

心覺心覺喪失本心者
심각심각상실본심자
一不義 二魂惡 三貪慾 四惡意
일불의 이혼악 삼탐욕 사악의
五猜忌 六條人 七紛爭 八詐欺
오시기 육조인 칠분쟁 팔사기
九惡毒 十菽穢菴隱 十一誹謗
구악독 십숙은속은 십일비방
十二無神 十三無天 十四凌辱
십이무신 십삼무천 십사능욕
十五驕慢 十六藉慢 十七諸惡圖謀
십오교만 십육자만 십칠제악도모
十八父母相逆 十九愚 二十背約
십팔부모거역 십구우매 이십배약
二十一無情 二十二無慈悲
이십일무정 이십이무자비
二十三不義是忍也 이십삼불의시인야
此人悔心自責 此인회심자책
不然不免天怒天伐之毒矣
불연불면천노천벌자독의



하는 것. 십팔(十八) 부모를 거스르는 것. 십구(十九) 어리석고 몽매한 것. 이십(二十) 악속을 배반 하는 것. 이십일(二十一) 사랑이나 동정심이 없는 것. 이십이(二十二) 인정사정없이 냉혹한 것. 이십삼(二十三) 불의를 용납하는 자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뉘우치고 스스로를 꾸짖지 않는다면 하늘(하나님의 진노(震怒)와 벱락 맞는 것과 같은 혹독한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哥前 告前

虛多犯罪諸惡之中 有罪於身外
허다범죄제악지중 유죄어신의
身內犯罪極凶之一條也
신내범죄극흉지일조야
犯內之罪青春男女慎之又慎
범내지죄청춘남녀신지우신
六六一七七七八 碌碌日晷晷日晷
善男善女 선남선녀
慎此言慎行之哉 신차언신행지재
如何間不離夫婦 여하간불리부부
人男獸也 逢之願心同居 不棄
인남수부봉지임심동거불기
獸男人婦願之共居 수남인부원지공거
是亦不棄 蓬田如麻 서역불기 봉전여야
同氣動柔 香風往來 동기훈유 향풍양래
獸人得生 天然之事 수인득생 천연지사
世不知也 세부지야

사람이 허다하게 저지르는 죄와 여러 악행 가운데에는 몸 밖에 짓는 죄와 몸 안에 짓는 죄가 있으나 몸 안에 짓는 죄가 극히 흉하기로 첫 번째이니라. 몸 안에 짓는 죄는 음욕으로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되니 청춘남녀는 삼가고 삼갈지니라(고린도전서 6장 17~18절).

선남선녀는 이 말씀을 따라 행동을 삼가고 삼갈지니라. 어찌하였든 부부는 헤어지지 말라. 사랑다운 남편이 짐승 같은 부인을 만났을지라도 부인이 같이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짐승 같은 남편과 사랑다운 부인이 만났어도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하거나 이 역시 버리지 말라.

속밭에 난 삼(參)과 같이 동기(同氣) 간처럼 훈훈하고 부드럽게 대하면 향기로운 바람이 오가게 되니 짐승 같은 사랑도 영생을 얻는 수가 있느니라. 때가 이르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구세주 하나님(정도령)의 일을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느니라.

俗世之人坐井觀天
속세자인좌정관천
心覺此言 심각차언
運行度數時不避也
운행도수사불피야
神出鬼沒 眞來邪言矣
신출귀몰진래사언의
十三十 삼삼삼십
行惡視四善 汚行實也
행악시사선 오행실야
恒心守義 犯行作罪不免天伐矣
항심수의 범행작죄불면천벌의

속세의 사람은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는 격'이라고 시야가 좁고 안목이 짧으니라. 천지운행도수와 그 때는 피할 수 없다. 라는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 깨달아야 하느니라. 신출귀몰(神出鬼沒)하신 진짜 구세주하나님 정도령이 오셨는데 사탄 말을 하겠는가? 고린도전서 13장 3~10절, 악을 행하는 것은 물론 악행을 보는 것도 사선(四善)을 더럽히는 행실이니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의로움을 지켜나가야 하느니라. 법도를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늘(하나님)로부터 벱락을 맞는 것과 같은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선(四善)은 옛날 중국(中國)에서 관리(官吏)의 성적(成績) 고사(考査)를 매길 때의 네 가지 표준(標準)으로 덕행(德行), 청신(淸慎), 공평(公平), 근면(勤勉)을 말한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진리 | 교리가 하나밖에 없어 전도 문답 [12]

질문: 승리제단의 교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승리제단의 교리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입니다.

질문: 교리가 너무 간단하네요.

답변: 교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진리 이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교리를 제창하신 이긴자께서는 "우리 제단의 교리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야 맞는 이유는 '하나가 되어야 구원이요, 하나가 되어야 영생이요, 하나가 되어야 바로 이 제대로 하늘나라에도 갈 수가 있고 하나가 되어야 평화가 오고 하나가 되어야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고로 교리가 하나 밖에 없어야 그게 맞는 진리인 것이올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답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형제의 죄가 내 죄요, 이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니까 형제의 안타까운 사정 이 내 사정이요, 이제 그대로 형제 아픔이 내 아픔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게 되면 상대방을 남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미워할 수 없기에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질문: 이씨 다르고 김씨 다르고 박씨

답변: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누구든지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현재 나의 핏속에 조상의 과거가 녹아 있으며 실제로 나의 몸은 부모의 피와 조상 대대로의 피로써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의 남자(이담)와 한 사람의 여자(해와)에 이르러 그 정점에 하나님의 피로써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알고 보면 한 조상에서 시작되었으며 한 피 받은 한 몸인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한 뿌리에서 시작되어 80억의 가지로 뻗어 있는 것이므로 동족으로 뻗은 나뭇가지가 서쪽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향하여 남이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와 내가 구별되고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은 파괴되고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질문: 놀랍군요.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승리제단의 교리가 하나 되는 비결을 함축하고 있군요. 하나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 속에 평화가 있기에 인류가 하나 되자라는 운동을 펼치는 단체조차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 가운데 그저 일 상적으로 '하나님'이 좋다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인상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리제단의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 인류가 하나 되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평택제단 : (010)7516-1591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55)327-2072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 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